문화도시 정체성 찾고 갈 길 밝히다

광주일보 문화예술 전문 매거진 '예향' 복간 5주년

예술인·명사 생생한 목소리 담아
'글로컬' 문화예술 잡지 자리매김

광주일보에서 펴내는 문화예술 전문 월간지 '예향'이 복간 5주년을 맞았다.

1984년 10월 창간된 월간 '예향'은 IMF 여파 등으로 2002년 2월 통권 209호 발간 이후 발행을 잠정 중단했다가 광주일보 창사 61주년을 맞아 2013년 4월호로 복간했다.

월간 '예향'은 시대의 흐름에 맞춰 지역성과 국제성을 가미한 고품격 '글로컬'(Global+Local) 문화예술 매거진을 표방하면서 독자들의 곁을 떠난 지 11년 2개월 만에 새롭게 닻을 올렸다. 제2의 창간이라 할 수 있는 복간호에서 '독자 여러분의 세상과 문화와 사람에 대한 끝없는 관심을 담아내는 그릇'과 '지난 시대의 역사적 상처를 예술로서 승화시키는 문화의 매개체'가 되겠다고 밝혔다.

이에 발맞춰 월간 '예향'은 매달 특집과 기획을 통해 아시아 문화중심도시를 지향하는 광주라는 도시가 문화적·예술적·사회적으로 어떻게 기여할 것인가에 대한 방향과 비전을 제시해왔다. '예향, 문화융성의 해를 열다'(2014년 1월호)를 비롯해 '문화전당 에너지, 진화하는 광주'(2014년 10월호), '이젠, 컬처로드 금남로'(2015년 2월호), '건축, 문화광주 아이콘 되다'(2016년 4월호), '문화로 먹고 사는 광주를 꿈꾼다'(2017년 6월호)와 같은 글들은 독자들의 호응을 얻었다.

무엇보다 '사람이 문화다'라는 철학을 바탕에 깔고 '사람중심의 잡지'를 지향했다. 문화예술계 현장에서 활동하는 예술인과 사회 명사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담아왔다. '예향초대석'과 '이달의 아티스트', '남도의 장인들' 코너를 통해 99세 철학자 김형석 교수를 비롯해 피아니스트 한동일, 첼리스트 정명화, 섬진강 시인 김용택, 탄광촌 화가 황재형, 미디어아트 이이남 작가, 박명성 신시컴퍼니 대표, 남도의례 음식장 이애섭 등 많은 문화예술인과 장인들을 인터뷰해 소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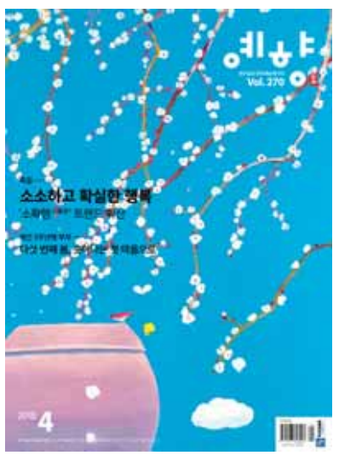
또한 '예향'과 '민주화의 성지'인 광주의 정체성과 그 가치를 빛나게 하는 전라도적인 것과 5·18, 그리고 아날로그적인 것에 눈길을 뒀다. '문화 품은 남도 철길'(2013년 12월호)과 '기 살아라! 전라도 사투리'(2014년 3월호), '뿌리의 정신, 종가를 다시 본다'(2017년 2월호), '백만 송이 이야기꽃 피어라 5·18'(2013년 5월호), '팔딱이는 문화, 여기는 전통시장'(2016년 8월호)을 통해 '예향'의 정수를 찾고자 했다.

이 밖에도 '미(美)로미(味)로'와 '신(新) 남도여지도', '남도미미락(美味樂)', '신(新) 남도택리지' 시리즈를 통해 전남 22개 시·군의 멋과 흥, 맛을 소개했다. 올해는 전라도 정도(定道) 천년의 해인 만큼 독자들에게 전라도의 멋스러움과 흥겨움, 여유로움을 보여줄 계획이다.

앞으로도 월간 '예향'은 문화수도 광주의 위상에 걸맞게 다양한 읽을거리와 볼거리로 독자들을 찾아갈 예정이다. 이를 통해 지역과 세계를 아우르는 품격있는 '글로컬' 문화예술 잡지로 자리매김할 계획이다. /송기동기자 song@kwangju.co.kr

광주일보 문화예술 전문 매거진

예향 4월호



'소확행'… 평범한 일상에서 행복을 찾는 사람들

고규홍씨가 들려주는 나무 이야기

'예향' 4월호 특집에서는 삶 속으로 퍼지는 '소확행'을 이야기한다. 2018년 대한민국의 트렌드 중 하나는 소박한 행복을 추구하는 '소확행'이다. 거창한 '누림'보다는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을 찾는 것은 어쩌면 막막한 현실 속의 돌파구일지도 모른다. 평범한 일상에서 행복을 찾는 사람들을 찾아보고 출판가와 대중문화 속에 파고든 '소확행' 신드롬을 소개한다.

예향 초대석의 주인공은 나무 칼럼니스트 고규홍씨다. 나무와 더불어 그 곁에서 살아온 주민들을 통해 나무에 얽힌 이야기를 듣는다는 그는 '나무가 허락하는' 때를 기다려 사진에 담는다.

전라도 정도 1000년 기념 기획시리즈 '新 남도택리지'가 찾아간 곳은 봄의 절정을 만끽할 수 있는 '대나무의 고장' 담양이다. 올해로 담양(潭陽)이라는 지명을 사용한 지 천년을 맞은 담양은 유구한 역사뿐만 아니라 죽녹원과 관방제림, 메타세쿼이아길 등 '힐링' 여행지로 각광받고 있다. 담빛 예술창고와 많은 갤러리, 해동주조장, '쓰담길'은 또다른 미래 천년을 준비하는 담양의 문화공간들이다.

동네 책방에 빠져보는 시간, '책방별곡'이 찾아간 곳은 런던의 명물 '워드 온 더 워터'다. 리젠트 운하 위에 떠 있는 물 위의 서점 '워드 온 더 워터'(Word On the Water)의 모든 것을 담았다.

바야흐로 야구의 시즌이 시작됐다. 지난해 통합 우승에 이어 최강 전력 그대로 'V12' 사냥에 나서는 KIA 타이거즈의 2018 전략을 스포츠 전문 김여울 기자가 분석한다.

이외에 화성 궁평항을 시작으로 고창 구시포항까지 서해안권을 따라가는 '한국의 국가어항'을 소개하고 섬진강의 고장 하동 이병주 문학관으로 문학관 기행을 떠나본다. /이보람기자 boram@kwangju.co.kr

예술과 함께 떠나는 남도수묵기행

해남군·행촌문화재단 예술기행
6월 제외 11월까지 매월 두차례
4월 대흥사·백련사 동백숲서 진행

해남군과 행촌문화재단이 진행하는 '예술과 떠나는 남도 수묵기행'이 11월까지 20차례 열린다. 4월 14~15일 음악회가 열릴 백련사 동백숲.

'예술과 함께 떠나는 여행에 초대합니다.'

맛있는 음식, 향기로운 차, 남도의 아름다운 풍광, 구성진 남도소리, 깊은 수묵의 세계, 그리고 옛사람들과의 인연으로 만들어진 예술 기행 프로그램이 시작된다.

해남군과 행촌문화재단(이사장 김동국)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전통문화체험 관광프로그램을 진행중이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 공모사업에 선정된 '예술과 함께 떠나는 남도수묵기행'(이하 남도 수묵기행)을 통해서다. 지난 3월 남도 꽃구경으로 시작된 프로그램은 오는 11월까지 모두 20회 진행한다.

'남수묵기행'은 여행이 진행되는 1박2일(2박3일) 동안 큐레이터와 예술들이 함께 동참하는 프로그램이다. 남도 전통문화예술, 그 중에서도 '수묵'을 주제로 남도 수묵의 본 고장인 해남 일원의 인문 예술적 장소 답사와 문화예술체험을 결합했다.

프로그램은 행촌문화재단이 2015년부터 매년 추진하고 있는 전시 '풍류남도 아트프로젝트' 중 '예술가의 봄소풍'에서 출발해 다양한 콘텐츠를 담게됐다.

'남도수묵기행'은 동백과 매화가 가장 먼저 봄소식을 전하는 남도의 3월에 시작해 장마가 시작되는 6월을 제외하고 매월 두차례 계절별 명소와 지역축제, 행사 등을 고려해 월특화된 프로그램으로 운영된다.

미황사에서 진행된 3월 행사에 이어 4월에는 아침마다 새소리와 동백이 장관을 이루는 대흥사와 백련사 천년 동백숲에서 새로 덖은 햇차를 맛볼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특히 14~15일에는 백련사에서 동백숲 음악회를 열 예정이다.

여름에는 동시대 예술가들이 봄부터 준비한 예술작품이 오래된 천년고찰에 쌓인 역사문화유산과 함께 관람객을 맞는다. '큐레이터와 해설사의 예술적인 시각의 해설'이 동행하고, 수묵 예술가가 함께 오래된 화가의 꿈을 이뤄볼 수도 있다.

무엇보다 남도의 들과 산 바다가 남도사람과 함께 차려낸 맛있는 밥상과 초의선사가 사랑한 남도의 야생차의 깊은 맛을 느껴보고 명주로 알려진 해창 막걸리와 삼산 막걸리, 구성진 남도소리를 현장에서 직접 만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준비돼 있다 가을 여행은 전남국제수묵비엔날레와 연계해 남농기념관, 진도운림산방, 남도문예르네상스의 종가 녹우당 등 수묵에 대한 심도 있는 인문 예술적인 이해와 체험이 가능한 코스로 구성했다. 남종화의 뿌리가 내린 남도에서 그림의 배경이 되었던 장소들을 직접 체험하며 옛 예술가들의 자취와 동시대 예술이 만나는 감동을 느낄 수 있는 기획이다.

참가신청 문의 행촌문화재단 061-533-3663. 아트앤 트래블 010-7379-7772.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광산문화예술회관 '무대나누기 프로젝트' 참가단체 공모

광주 광산구가 광산문화예술회관 무대를 청년예술인과 무료로 나누는 '2018 광산무대나누기 프로젝트-화요문화산책'을 실시한다.

지난해부터 무대 나누기를 진행한 광산구는 아카펠라, 클래식, 일렉트로닉 사운드 등 4개 단체를 선정, 공연을 진행했었다. 올해는 지난해 사업을 보강, 단체별로 출연료 100만 원을 지급하고, 지원단체도 6개로 늘렸다.

공모 대상은 광주에서 활동하는 만 20~39세 청년예술인 5인 이상으로 구성된 공연단체로 연극, 음악, 무용, 전통예술, 다원예술 등 공연예술의 모든 장르가 가능하다.

지원 내용은 공연장 무료대관 및 부대시설 사용, 출연료 지급, 홍보물 제작 등이다. 이들이 창작한 작품은 7월부터 12월까지 매월 둘째 주 화요일에 여는 '화요문화산책'에서 선보인다. 신청 마감은 오는 13일이다. 문의 062-960-8253.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